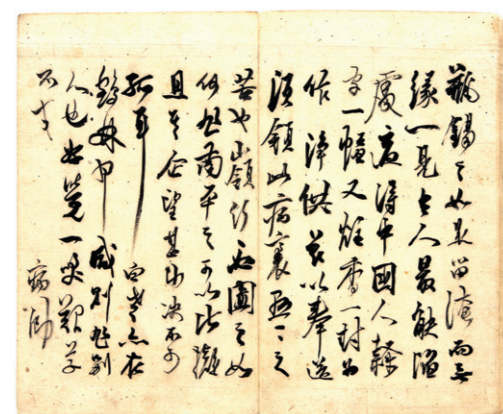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가 연경에서 용방강을 만나 학연을 맺은 후, 그의 학문적 개안은 일취월장되었고, 완원이 나 조강, 주학년, 이정원, 용방강의 아들 용수군 등으로 교유가 확대된다.

이러한 추사의 외연의 확대는 그의 제자들뿐 만 아니라 초의와 대문사 승려들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주학년이나 용수군 등 정대의 학자들이 초의와 대문사 승려들과의 교유를 맺게 된 계기는 추사를 통해서이다.

특히 고종학에 밝았던 용수군은 대문사의 역사적 사료, 즉 비문과 사적 등에 관심을 보여, 이러한 사료를 아암의 문도인 수봉과 기어를 통해 얻은 후, 감사하는 글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문사 승려들의 청대 문인들의 고유 사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대략 1834년이나 1838년 경에 쓴 것으로 짐작되는 추사의 편지는 청대 문인들의 문적이 이 문 통해 초의에게 전해진 사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추사선필본》

추사, 초의에게 중국 주향 등 보내 격의 없었던 두 사람의 통유

中國人隸字一幅 又姓書一封爲作淨茲 以奉送 須領此病裏懸懸之苦 行必履之如何 非南平之可以 以擬 具 其企望甚切 決不可孤耳 白老亦在鶴林 耶 咸則別別人也 好觀一笑 巖草不式

(여초의)12신과 (주상운타철)에도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학림암에 있을 때 쓴 것이라 여겨진다. “백파노스님이 아직 학림암에 계신가?”라고 한 추사의 언급은 이 편지가 《완당전집》(여초의) 11신과 비슷한 시기에 보낸 것임을 나타낸다. 추사가 거듭하여 백파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당시 초의가 학림암에서 백파에게 선리의 일각자를 혼신 받고 있었음을 드러낸 셈. 이러한 정황을 달

가워하지 않았던 추사는 거듭하여 초의에게 행장을 꾸려 귀사(歸省)할 것을 재촉한다. 추사의 주장은 초의의 선이 부처님에게서 연원한 것이고, 대문사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냐는 것. 그가 학림암에 있던 초의를 만나지 못한 정황은 자세하지 않았다.

다만 병중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 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그가 병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인에게 얻은 예서 한 폭과 향을 예품으로 초의에게 보낸다. 이는 청대 문인의 진적이 추사를 통해 초의에게 전해진 정황을 드러낸 셈이다.

초의의 소장 유품 중에 용방강이 사정한 《완각장》이 유전된 것도 추사를 통해 그에게 전해진 것은 아닐까. 아울러 주향(往香) 한 봉을 정중한 예물로 보낸다는 것이 눈에 띈다. 주향은 태우지는 않. 청에 유행되었던 전단향을 구해 초의에게 보낸 것인데, 아니면 귀한 침향을 정공으로 보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평소 그가 염주를 물에 지니고 다녔으며, 친불교 유학자로, 불교 이론에 밝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향을 피워 주변을 정화하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순화했던 삶의 계획은 흔한 일이다. 특히 추사는 유마거사를 좋아했으며, 무변(無邊)의 통쾌한 삶을 살았던 소풍과 흥모했다는 점에서 그의 생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가 초의에게 주향을 정공으로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들의 통유(通流)는 격의가 없었다. 박종춘(동아사이치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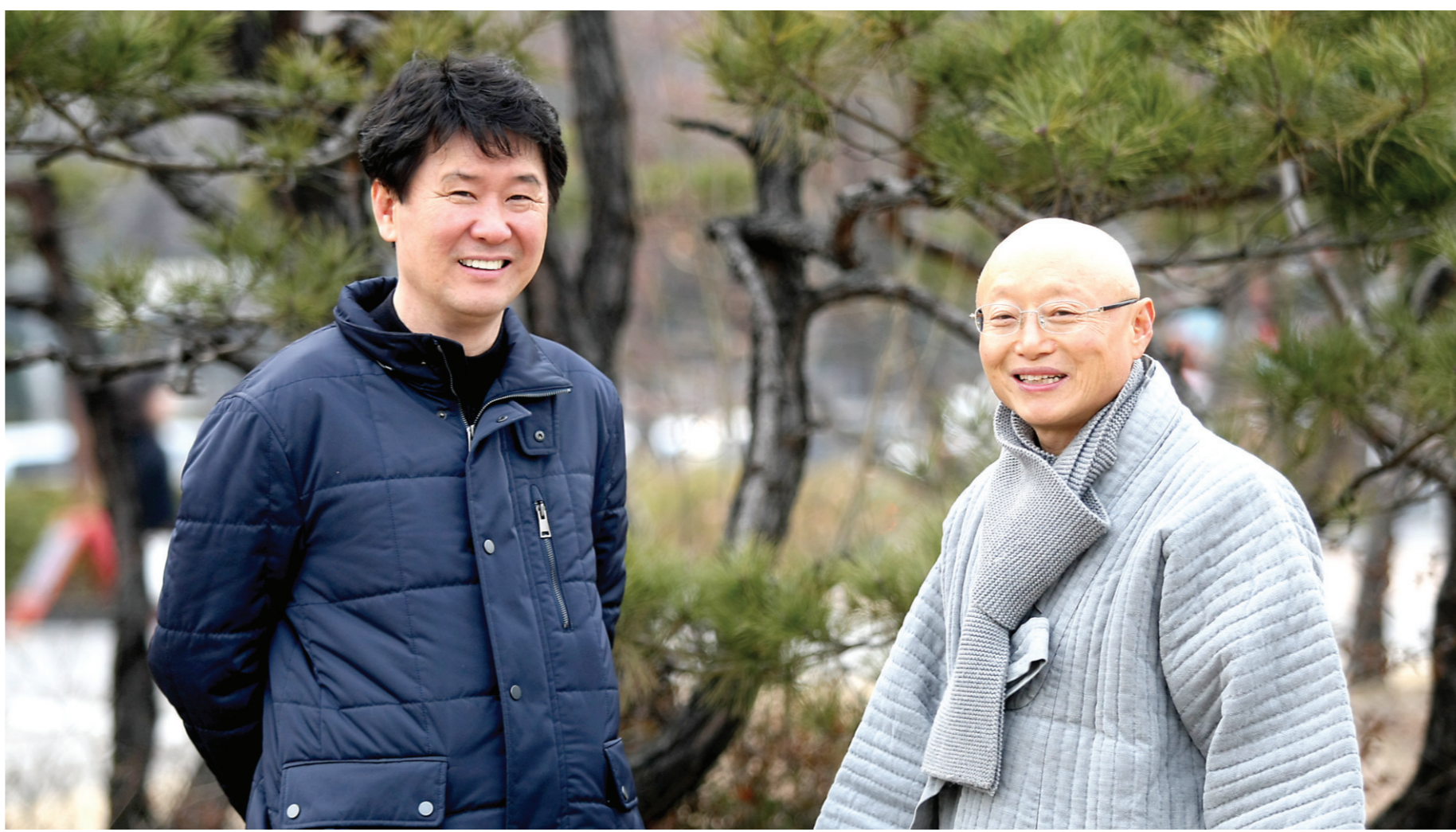


박종춘(동아사이치문화연구소장)

스님과 형사 쪽방촌 봉사 파트너 13년

보성 스님(하동 상선암 주지)

김윤석 반장(양서경찰서 강력팀장)



김윤석 반장은 상선암 상선다원 보성 스님의 후원으로 영동포구 당산동에서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13년 동안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불교박람회와 정 안에서 김윤석 반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마차 지상과 텔레비전 한 대류 프로그램에서는 쪽방촌 사람들을 돕는 형사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봉사단은 꾸려 13년 동안 영동포구 당산동 쪽방촌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하는 형사 반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남 하동에서 수재자를 만들어 후원해주는 한 스님이 있었다. 형사와 스님이 만나 20년 넘게 함께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박람회와 시작되기 하루전인 지난 3월 6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서울경찰청장서 형사와 팀장 김윤석 반장(60)과 경남 하동 상선암 상선다원 주지 보성 스님이 만났다. 스님이 상선다원에서 직접 제단한 지리산 수재자를 선보이기 위해 불교박람회를 찾았을 이 어린 스님을 만나기 위해 김 반장이 스님을 배려 온 것이다.

둘의 첫만남은 신도와 스님의 관계가 아닌 봉사자와 후원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반장은 당시를 이렇게 얘기한다. “20여년 전 소년원 쪽 업무를 담당할 때 삼동 소년원에 아이들을 만나며 다닌 적이 있어요. 당시는 봉사라기보다는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였죠. 이게 신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후 스님은 쪽방촌 어르신들 환경이 열악하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보성 스님이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반장은 그때부터 영동포구 당산동 옛 파출소 건물 옥상을 임대해 천막치고 인근 쪽방촌 노인들에게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은 지리산에서 직접 차농사를 지어 김치 쌀 콩지 팥콩 떡국떡 부시 등을 꾸준히 후원해 주었다. 특히 녹차가루 매실액 등 최상의 재료로 만드는 스님의 김차차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김차라고 한다. 보성 스님이 한 해 보내주는 김차는 4천. 이는 4-5천 포키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김차를 하기 위해서 스님은 8월부터 준비를 한다.

일단 해남 배추와, 영월의 신도에게 무농과 고추를 미리 주문해 놓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매실액, 녹차가루도 준비한다. 이렇게 한가운데 오기전 상선암에서는 100여명의 신도들이 3-4일에 걸쳐 김장을 해 쪽방촌 사람들에게 김치를 보내준다.

이는 스님이 1년 내내 차를 따서 만든 수재자를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시다. 천가지 생각보다 한가지 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스님은 너무 고되게 노동하다보니 일년에 하나씩 손톱이 빠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부치고 다닌다고 한다. “연비를 하는 스님도 있지만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습디다. 손톱은 또 자라거든요. 내가 바뀌면 신도들이 바뀌고 신도들이 바뀌면 그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드는 일이 나에게서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짓는다.

스님은 이 도우미들을 상선암으로 내려오게 해 함께 윤력을 시키기도 한다. 스님은 이런 일들이 어떤 범용이 있었어요.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세상이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스스로 알아지고 그러다보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방촌 도우미를 하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

는 세상의 말에 일회일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은 김반장의 이런 행보가 평생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세상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실수의 전무인 것처럼 치부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봉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적 떨어지고 착한 사람이죠. 20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김 반장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껴요.” 김 반장은 스님이 없었다면 쪽방촌 봉사는 업무도 못됐다고 손사래를 친다. “스님께서는 공경주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차농사 지어 인간불사 하시느라 겁니다. 다른 절처럼 기도비로 절을 운영하지 않고 스님 스스로 노동해서 절을 운영하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차농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쪽방촌 봉사도 처음부터 스님 믿고 시작한 것이니 스님께서도 불행이 없게 도와주시니 지금까지 쪽방촌 봉사단을 꾸려올 수 있었습디다”

다수분의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다. 로포에 담겨있던 또 혹은 제발만큼 돈을 빌린 이웃을 돕겠다고 하지만 보성 스님은 지금 여기서 남을 도울 수



김윤석 반장(사진 오른쪽 세번 째)이 당산동 위치한 금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가 아니었다. 처음 도시락을 배는 노인들은 14명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70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성 스님을 비롯한 삼동 소년원에서부터 도와주던 몇몇 후원자가 전부였기에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인근 문래동 시장에 새벽기를 주문하고 국을 끓여 나눠주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난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이웃들의 시선이었다고 김 반장은 말한다. “이제 파출소로 쓰던 건물 옥상을 빌려 주방 겸 사무실로 쓰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지고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은 돈을 모아 기건물을 세워 지금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지금은 어떤 일이 닦지도 끄덕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디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니 세상이 봉사단을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때거리가 없어 어떡하냐고 걱정하며 내일은 밥을 못 드릴 거 같다고 자포자기했는데 배식 당일날인 목요일이 되면 누군가가 부식을 두고 가고 쌀을 두고 가고 또 라면을 두고 갔다. “특별히 할 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르신들께 밥 한 끼 따뜻한 것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내니 저절로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늘도 스님에게 매실을 보내달라고 보채는(?) 김 반장에게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뉘를 자꾸 달라고 해” 하면서 보성 스님은 특유의 맑은 미소를 짓는다. 스님은 김 반장이 ‘보석 같이 예쁘고 주반 같이 친근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스님과 김 반장은 20년 인연을 이어오면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꾸준히 봉사하는 김반장이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다들 자기 일 바빠서 어려운 이웃 돕보는 일을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김 반장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바쁘죠. 밥이 잠는 일 하는 게 어디 쉽나요? 항상 배식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봉사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어쩌다가 한 두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봉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적 떨어지고 착한 사람이죠. 20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김 반장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껴요.”

김 반장은 스님이 없었다면 쪽방촌 봉사는 업무도 못됐다고 손사래를 친다. “스님께서는 공경주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차농사 지어 인간불사 하시느라 겁니다. 다른 절처럼 기도비로 절을 운영하지 않고 스님 스스로 노동해서 절을 운영하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차농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쪽방촌 봉사도 처음부터 스님 믿고 시작한 것이니 스님께서도 불행이 없게 도와주시니 지금까지 쪽방촌 봉사단을 꾸려올 수 있었습디다”

다수분의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다. 로포에 담겨있던 또 혹은 제발만큼 돈을 빌린 이웃을 돕겠다고 하지만 보성 스님은 지금 여기서 남을 도울 수

는 길을 찾았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 자투기가 있습니다. 이 자투기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요. 이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욕심자투기를 잘만 관리 하면 누구나 보시의 봉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이웃을 위해 보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라고 강조한다. “90세를 가지고 있어도 100세를 채우기 위해 하나를 가지고 아깝다 옹하는 게 아닌 겁니까? 하지만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을 떼어 줄 수 있는 게 진짜 보시예요. 몇 개가 생긴 다음에 하나 주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수행자는 하루 한 개 공양할 거라면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동시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래 서울은 물론 부산 대천 대구 등에서 전격적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김윤석 반장. 그에게는 늘 지리산에서 차를 따오며 그를 든든히 후원하는 상선암 상선다원 보성 스님이 있었다.

“스님 차가 잘 팔려야 우리 쪽방촌도 잘 되는데, 스님 차는 맛과 향이 정말 최고거든요. 김이 몸살에도 좋고”라며 농담처럼 밥을 던지는 김 반장의 말에 스님은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뉘를 자꾸 달라고 그래”라고 하며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짓는다.



지리산 상선다원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는 보성 스님은 차 수익금으로 김윤석 반장의 쪽방촌 봉사단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은 상선다원 차밭에서 온역 후 재검을 먹고 있는 보성 스님(왼쪽)과 김윤석 반장

전법일기

어느 날의 일기 ①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인락을 최대한 배주는 봉사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행하는 갖가지 봉사활동을 말하는데 나는 약 6개월 정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활동하다가 성대병원에서 생기면서 그걸 치료하는 동안 달분간 쉬게 되었다. 그동안의 일을 일기로 썼다. 그 중 일부를 실는다.

8월 7일

863호실, 58세인 백영자 불자님은 내가 다가가지 나를 바라보며 환장했다. 위안, 물이 많이 수척한 상태인데 수시로 토하고 있었다. 갈색 물질을 한동안 토해내고 나면 생수로 입을 헹구기를 반복했다. 팔기 힘든 밤새가 진행됐다. 토하기가 끝나자 내가 말했다.

“보살님, 절에 자주 다니셨어요?” “자주는 못가고 형편 따라 갔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됐습니다.” “저런 관세음보살 기도할까요?” “기도해 주시면 저야 고맙지만은 스님이 안 귀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불현듯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 마흔 여덟,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 우리 엄마도 딸이에 어렸을지, 음식을 드시던 다 토해 버리다 결국 고향아저침 말라서 떠나셨다. 백영자 보살님 모습에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눈물이 스물스물 맺어 나왔다. 관세음보살...

어머니의 기도



그림 · 박구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 분을 알면 대려가소서, 고통없이 관히 데려가소서. 발을 주무르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보살님, 절에 자주 다니셨어요?” “이제 됐습니다. 스님 팔 아프지 않습니까?” “백영자 보살님은 왼쪽 발 밓사지가 끝나서 그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됐습니다.” “저런 관세음보살 기도할까요?” “기도해 주시면 저야 고맙지만은 스님이 안 귀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불현듯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 마흔 여덟,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 우리 엄마도 딸이에 어렸을지, 음식을 드시던 다 토해 버리다 결국 고향아저침 말라서 떠나셨다. 백영자 보살님 모습에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눈물이 스물스물 맺어 나왔다. 관세음보살...

8월 11일 863호실, 백영자 불자 옆에 젊은 처녀가 집을 싸고 있었다. 백영자 보살님은 나를 보더니 그 처녀에게 말했다. “스님한테 인사하세요.”

팔이 머리를 숙이는 사이 보살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가 우리 막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데 내일부터 왔어요. 바쁘게도 오지 말라 해도 왔습니다.”

“팔이 짐을 들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며칠 외박하고 올게.” “팔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오지 않아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얼른 가거라.”

엄마는 얼른 가라고 하면서도 딸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놓지 않고 한동안 잠고 있었다. 마지막 모습을 빼고 같이 새기기로도 하는 듯이, 엄마가 잠고 있던 손을 놓자 딸이 병실 입구로 가더니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도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순간 엄마 눈에 물기가 맺혔다. 딸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겨워더니 침대로 도로 밀려와 엄마를 악라 끌어안으며 기어이 풍곡했다. 엄마 눈에서도 유리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엄마, 엄마!” “엄마와 딸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한바탕 울음바다를 만듦더니 엄마가 감잔 팔을 풀어 말했다. “가거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젊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딸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더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딸이 떠난 후 엄마는 울음을 잃고 관음경을 하는 동안 엄마는 내내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짚씩 비벼며 빌고 있었다. 무디 그 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한복 스님(해신전문대 교수보성선주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색 디자인

3D 디자인

수제 등

이색 디자인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영동승강장치 天土로취

※ 이는는 법당 영동 설치도 바쁜 하루로 해결하세요.

영동 저층 승강장치 _ 홍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영구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신흠읍 수당2리 261-6 / 전 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영등 · 주불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우창산업 SHC 삼현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평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로전화 080-0766-8888

3·6연꽃나비사

3·6연꽃나비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원타 주황